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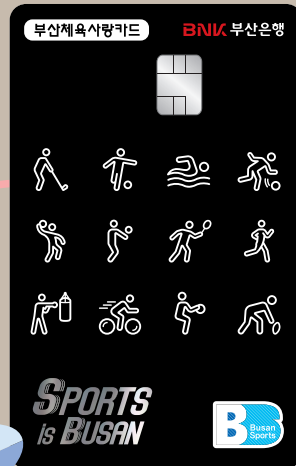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행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 할인혜택 제공

체육시설

부산시체육회 지정 시설 10% 할인

스포츠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10% 할인

의료

병의원/약국 업종 10% 할인

생활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5% 할인

학원

학원 업종 5% 할인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2441 (심의일자 2025. 11. 03) | 유효기간: 2025. 11. 03 ~ 2026. 10. 24
어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C14-16286호(2025. 11. 03 ~ 2026. 10. 24)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부산체육

Vol. **85**
2025. 12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특집호

Sports is Busan 2025
2025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12 Vol. 85

발행일 2025년 12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5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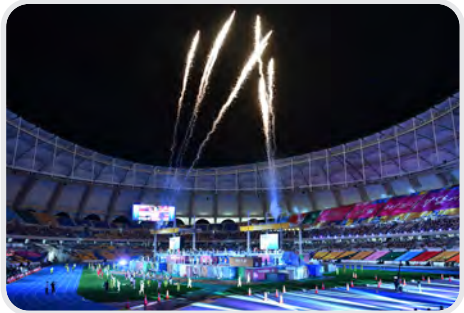
Sports is Busan 2025

- 06 Sports is Busan 2025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 28 2025 부산체육 돌아보기
- 되짚어보는 2025년 부산체육
 - 전국체육대회라는 새로운 세상
 - 새로운 신화 쓴 2025 부산체육

2025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 42 2025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 글로벌 스포츠도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출범
 -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체육활동 참여율 1위 달성
 - 전국시군구 체육회 성과평가 부산광역시 2위 달성
 -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과학적 스포츠 영재 육성사업 2년 연속 선정
 - 양정모 선수 금메달 예비문화유산 선정

56 부산체육 퀴즈



06 Sports is Busan 2025



12 Sports is Busan 2025



16 Sports is Busan 2025



20 Sports is Busan 2025



28 2025 부산체육 돌아보기



36 2025 부산체육 돌아보기



42 2025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48 2025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Sports is
Busa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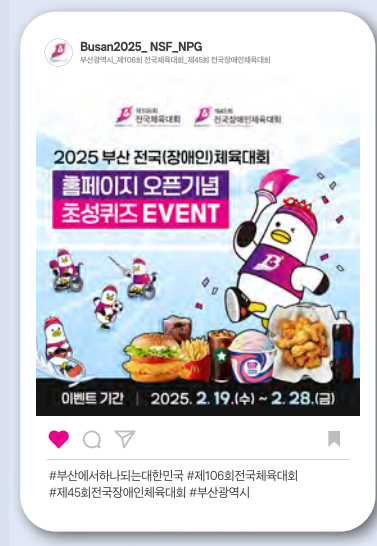
**SPORTS IS
BUSAN 2025**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25년 만의 부산 개최, 52년 만의 종합 2위 달성!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16개 구·군 151개 봉송 구간을 순회한 성화가 10월 17일 부산에 도착했다. 해운대 등 부산의 대표 명소를 거쳐 부산아시아드경기장으로 입장한 성화를 본 선수단과 시민들의 환호성과 함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체육인들은 물론 전 국민과 재외동포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 달려온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준비 과정과 폐회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찌감치 시작한 대회 준비와 홍보

전국체육대회의 준비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4월, 조직위원회(140명)와 집행위원회(1실 19부 71팀)를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종합사업 계획 수립에 이어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12월에는 조직위원회(138명)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개·폐회식 행사, 성화 채화 및 봉송, 자원봉사자 및 대회 홍보 전략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2월에는 전국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이 공개되었다. 2월 19일, ‘누리집 공개 기념 초성 퀴즈 이벤트’를 통해 39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등 누리집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부산의 다양한 관광·문화 정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노출하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더해 개최지인 부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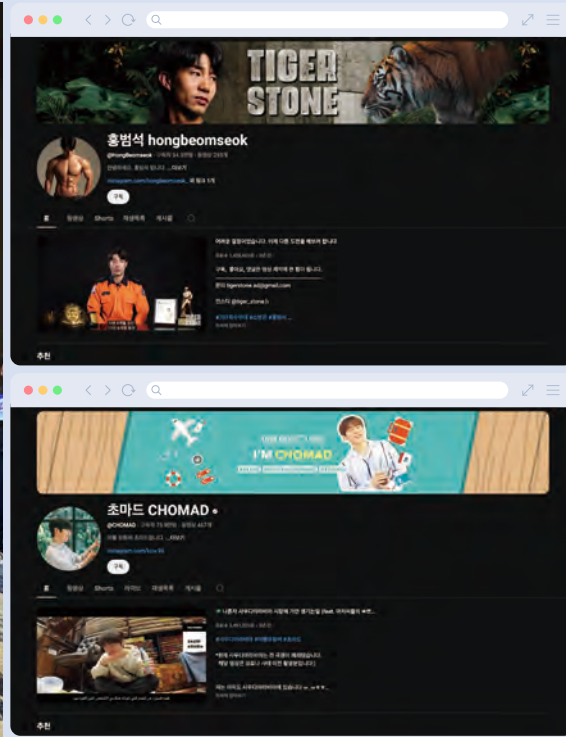
3월에는 본격적인 경기 운영과 경기장, 운영인력 관리를 위해 종목담당관을 임명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도전의 장으로, 부산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임명된 종목담당관들에게 열정과 헌신으로 대회 성공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적 응원과 지원사격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관심은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4월 21일, 국회에서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와 심포지엄이 열린 데 이어 4월 22일~24일에는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가 부산을 방문했다. 총 18개국(아시아 9, 북미 2, 유럽 3, 남





본격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

부산광역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앞선 7월,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 ‘찾아가는 구·군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며 대회 관계자가 구·군 회의장을 방문, 대회 개요와 준비상황,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고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모집, 성화봉송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유명 유튜버들도 홍보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세계소방경기대회 ‘최강 소방관’에 등극한 스트리머 홍범석은 동아대학교 육상부 선수들과 ‘전국체전 육상선수와 대결!! 얼마나 차이 날까??’를 제작해 달리기 좋은 부산의 명소를 소개했다. 여행 유튜버 초마드는 전국체전 선수단과 함께 부산의 여름 여행 코스와 로컬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의 과거와 미래를 그려내다

10월 17일, 온 국민이 기다리던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제목으로 부산의 항구 풍경을 아시어드 주경기장 그라운드에 재현했다. 컨테이너에서 뮤지컬 배우 최재림을 필두로 출연진이 등장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여러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는 옴니버스 형식의 무대로 부산의 역사와 산업, 그리고 시민의 삶을 예술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회식 다음에는 성화 점화와 불꽃쇼가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선수단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가 이어졌다.

폐회식 무대의 제목은 ‘뱅기 뜬다, 날자!’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그려냈고, 부산 영도할매와 제주 선문대할망 설화를 소재로 삼아 다음 개최지인 제주에 자연스럽게 배탄을 전달했다.

미 2, 오세아니아 2)이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총연합회는 부산시와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해외동포선수단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국’체육대회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하고자 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해외동포선수단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리면서 많은 해외동포 선수가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회 운영의 구체화

5월에 들어서는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박칼린 총감독과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 운영 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폐막식 연출 비전 발표회’가 개최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지형, 산업, 스포츠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 방식이 채택됐다.

6월 24일에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관계자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인화 회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국민통합과 지역상생, 나아가 부산이 스포츠 천국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대규모 야외 행사에 대비해 선수단, 공연단, 시민들의 안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남긴 눈부신 성과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체육대회의 숨은 주역은 부산 시민들이었다. 자원봉사자, 성화봉송주자, 서포터즈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시민 참여를 계기로 국내 대회 문화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덕분일까, 부산선수단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메달을 기대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비교적 약세라 평가받던 종목에서도 메달 소식을 알려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부산은 총득점 56,870점(금 66개, 은 57개, 동 117개)을 획득하며 66,595점을 기록한 경기도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3년 연속

6대 광역시 중 종합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복싱, 핸드볼 종목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 1위를 기록했고, 탁구 종목은 1986년 제67회 대회 이후 39년 만에 종합 1위를 탈환했다. 세팍타크로와 에어로빅힙합은 각각 8년,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이어갔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1월,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가지고 지도자 및 선수 등 유공자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인화 회장은 “부산 시민의 응원과 격려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선수들도 자긍심을 갖고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선수단 및 대회 준비에 힘쓴 실무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기록 돋보기

선전종목

우승								
		복싱	핸드볼	세팍타크로	에어로빅힙합	탁구	바둑	
준우승								
		태권도	레슬링	농구	사격	검도	요트	산악
3위								
		공도	조정	배구	야구소프트볼	댄스스포츠		

전년 대비 300점 이상 상승 종목

1,000점 이상	탁구+1,581 핸드볼+1,396 배구+1,381
500점 이상	세팍타크로+919 농구+905 하키+810 펜싱+775 복싱+739 육상+705 사격+695 소프트테니스+658 테니스+645 공도+625 태권도+592 사이클+546
300점 이상	역도+491 레슬링+475 양궁+461 씨름+444 합기도+444 볼링+419 롤러+407 검도+358 카누+304

다관왕

3관왕		에어로빅힙합 양궁	김지윤 부산동여고 김현지 체육회 이은재 한체대
2관왕		배드민턴 볼링 사격 에어로빅힙합 역도 육상_트랙 카누 탁구	김채정 부산외대 정유빈 부산외대 박수민 남구청 신민기 체육회 차지원 체육회 윤창일 체육회 임재한 체육회 유원주 체육회 정안성 동아대 황선홍 체육회 이동혁 영산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역대 최고 성적 달성

2025년 5월 마지막 주, 경남 전역 48개 경기장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나흘간 펼쳐졌다. 17개 시·도에서 약 1만 9천 명이 몰려든 대규모 무대에서, 부산은 종목을 가리지 않는 고른 성적과 두드러진 재능 발굴 사례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단순히 “메달을 많이 땀다”는 성과를 넘어, 유소년 스포츠 구조의 변화와 지역 시스템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종목을 넘나든 부산선수단의 경쟁력

대회는 육상 사전경기에서부터 부산의 기세를 실감하게 했다. 대신중 이건호 선수는 단거리 전 종목에서 메달 3개를 가져오며 확실한 에이스임을 입증했고, 부산체중의 문보현, 박관우 선수도 경보와 원반던지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일 차부터 양궁에서 김수민, 박규필 선수가 나란히 60m 우승을 차지하며 기세를 이어갔다.

둘째 날에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했다. 그중 가장 강렬한 순간은 롤러 종목이었다. 최예윤(해송초)과 김예준(연지초)이 각각 500m+D와 3000m 포인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부산이 이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손에 넣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영 종목은 이번에도 부산의 강세가 도드라졌다. 박도훈(모동중), 황설후(광남초·스포츠클럽) 두 선수 모두 2관왕에 오르며 부산 수영의 두터운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황설후 선수는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대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금빛 행진은 결국 총 105개의 메달, 부산선수단 역대 최고 성적으로 귀결됐다. 레슬링의 이창현(부산체중) 선수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어 부산체육의 상징적 장면을 완성했다.



단체전이 보여준 부산 유소년 스포츠의 힘

개별 선수들의 활약과 더불어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의 성장세가 확인됐다. 농구에서 성남초 우승, 배구에서 경남여중 우승(춘계·전국종별·소년체전 3관왕), 야구에서 수영초 창단 첫 준우승 등의 혁혁한 성과를 남겼던 것.

특히 경남여중의 3관왕 달성은 ‘부산 배구 시스템의 성숙’을 상징하는 결과다. 기초 체력 훈련, 포지션별 전문 코칭, 경기 분석 시스템 등 학교 운동부의 체계적 훈련이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부산체육중학교는 올해 대회에 또 다른 주역이다. 육상, 양궁, 레슬링, 근대3종 등 10개 종목에서 31개 메달을 수확하며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성취를 기록했다. 특정 종목 편중이 아닌 ‘다종목 강세’가 특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부산 유소년 스포츠의 오늘이 보여준 내일

부산선수단은 1,061명(선수 781명, 임원 280명)이 34개 종목에 참가했다. 기록만 놓고 봐도 충분히 눈부시지만, 이번 대회의 진짜 가치는 부산 유소년 스포츠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메달은 더 많아졌고 종목은 더 다양해졌으며, 선수 발굴의 경로는 넓어졌고 학교와 지역 클럽의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단기간의 성취가 아니라, 부산체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다.

부산의 미래 운동선수들은 더 다양한 곳에서 자라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소년체전은 그 변화를 또렷하게 드러낸 무대였다.



대회 신기록



롤러

종별	세부종목	선수명	소속	학년	기록
남자12세이하부	1000m	김예준	슈퍼비클럽	6	1:34.488



양궁

종별	세부종목	선수명	소속	학년	기록
남자15세이하부	60m	박규필	부산체육중학교	2	350

다관왕



근대3종

종별	선수명	소속	학년	메달	세부종목
남자15세이하부	정수영	부산체육중학교	3	금	단체전
				금	계주
	김진우	부산체육중학교	2	금	단체전
				금	계주
	경로겸	부산체육중학교	2	금	단체전
				금	계주
	김주원	부산체육중학교	1	금	단체전
				금	계주



수영

종별	선수명	소속	학년	메달	세부종목
남자12세이하부	공건	분포초등학교	6	금	접영50M
				금	자유형50M
남자15세이하부	박도훈	모동중학교	3	금	접영100M
				금	접영50M
				동	계영400M
여자12세이하부	황설후	부산진구스포츠클럽	6	금	배영50M
				금	배영100M
				동	혼계영200M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8년 연속 전국동계체육대회 5위 달성!

부산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체육사에 한 획을 그은 것과 동시에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게 되었다. 그 시작점은 역대 최다 메달로 목표순위를 달성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였다.



역대 최다 메달로 종합 5위 달성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등 8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17개 광역시·도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부산선수단 250명(선수 172명, 지도자 및 임원 78명)은 6개 종목(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에 출전하여 총득점 251점으로 종합 5위에 올랐다. 이로써 부산은 무려 18년 연속 종합 5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1위라는 타이틀을 지켰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47개(금 19개, 은 16개, 동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부산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이다. 금메달도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15개를 경신했다.

이번 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의 메달 사냥에 포문을 연 건 사전경기로 진행된 빙상 종목이다. 피겨에서 김아론(만덕고)이 금메달, 성찬희(광안초)가 동메달, 쇼트트랙에서 박서진(동의대)이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설상 종목이 배턴을 이어받았다.

부산선수단을 이끈 스키 종목의 선전

부산은 한겨울에도 눈을 보기 힘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설상 종목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부산선수단이 획득한 47개 메달 중 스키 종목에서 41개의 메달이 쏟아져나왔으며 다관왕도 여럿 배출하였다. 크로스컨트리 전준상 선수(신도중)가 클래식5km, 프리10km, 복합, 20km계주, 스프린트1.2k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5관왕에 올랐고, 허부경 선수(부산진여고)가 클래식5km, 프리10km, 복합, 스프린트1.2km에서 금메달, 이의진 선수(부산광역시체육회)가 프리10km, 복합, 스프린트1.2km에서 금메달과 클래식5k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부산 크로스컨트리의 대들보라 불리는 두 사람은 '3년 연속 3관왕 이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알파인 최범근 선수(부산광역시스키협회)가 대회전, 회전, 복합,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 김건호 선수(한국체육대학교)가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부산 스키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바이애슬론, 산악, 스키 스노보드, 빙상 쇼트트랙 등에서 메달을 획득하였다.



동계스포츠 도시로의 완벽한 도약

목표순위를 달성하며 4일간의 대장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부산선수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6일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축하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부산광역시 손태욱 체육국장, 동계스포츠 종목 임원 및 지도자,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와 선수,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졌다. 시상식은 종합입상, 소속 단체장, 지도자, 입상 선수, 감투상, MVP 순으로 진행되었다. MVP는 5관왕에 오르며 차세대 유망주로 두각을 나타낸 전준상 선수가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종합입상단체와 메달리스트, 지도자에게 성과 수당을 지급하여 부산을 빛낸 이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동계스포츠 불모지였던 부산이 동계스포츠의 도시로 도약하였음을 확인하는 무대이자 부산체육의 저력을 확실히 입증한 역사적인 대회였다.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도별 성적

순위	시도	득점	메달(계)	금	은	동
1	경기	1,498.50	296	106	104	86
2	서울	1,097	155	53	55	47
3	강원	868	116	40	34	42
4	전북	553.5	59	14	26	19
5	부산	491	47	19	16	12
6	인천	394.5	37	9	15	13
7	전남	373	34	18	6	10
8	충북	348.5	19	3	4	12
9	대구	336	25	7	6	12
10	충남	265	23	11	6	6
11	경북	216	7	0	4	3
12	광주	159	3	0	0	3
13	세종	157	15	3	4	8
14	대전	129	2	1	1	0
15	경남	126	7	1	2	4
16	제주	121.5	2	0	0	2
17	울산	58.5	2	0	0	2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목별 성적

구분		순위	득점	합계	금	은	동
계		-	491	47	19	16	12
빙상	쇼트트랙	5	67	1	-	-	1
	스피드	13	4	-	-	-	-
	피겨	4	28	2	1	-	1
스키	스노보드	8	22	3	-	1	2
	알파인	5	66	7	5	-	2
	크로스컨트리	3	163	31	13	12	6
바이애슬론		7	34	2	-	2	-
아이스하키		10	42	-	-	-	-
컬링		9	28	-	-	-	-
산악		3	37	1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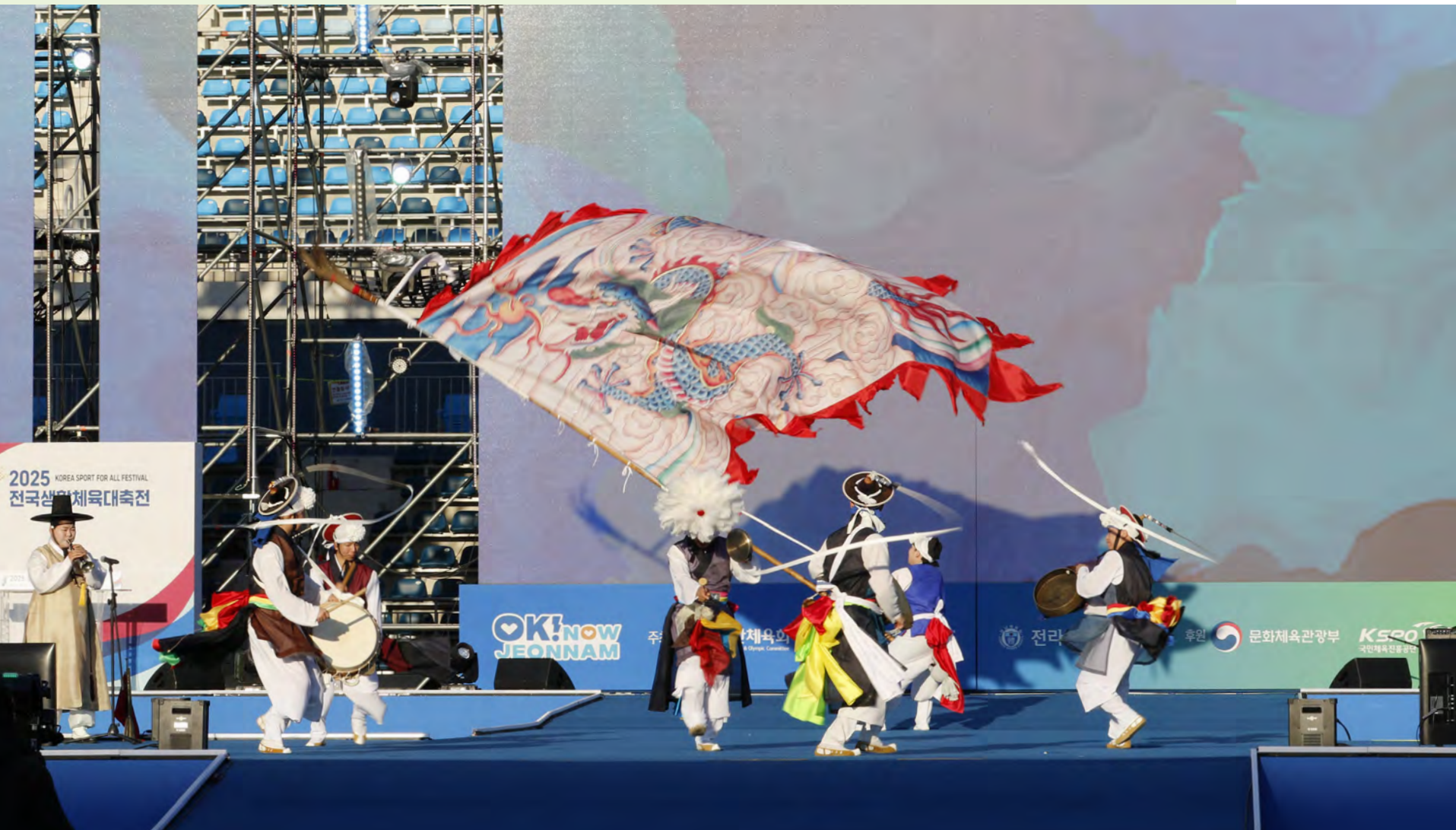
메달 획득자 명단

구분	메달	종목	세부	성명	소속	구분	메달	종목	세부	성명	소속
1	금	빙상 (피겨)	싱글B조	김아론	만덕고	26	은	크로스 컨트리	복합	서승민	정관초
2		스키 (알파인)	슈퍼대회전	김건호	한국체대	27			클래식 2.5km		
3		크로스 컨트리	복합	이의진	부산광역시 체육회	28			프리3km		
4			스프린트 1.2km			29			6Km계주	오신비 등 3명	광남초
5			프리10km			30			클래식 2.5km	오신비	
6			20km계주	전준상 등 4명	신도중	31			클래식5km	이의진	부산광역시 체육회
7			복합	전준상		32			복합	전아림	남산초
8			프리10km			33			프리3km		
9			스프린트 1.2km			34			스프린트 0.7km		
10			클래식5km			35			복합	정종원	부산광역시 체육회
11			프리15km	정종원	부산광역시 체육회	36	동	빙상 (쇼트)	3,000m	박서진	동의대
12		스키 (알파인)	대회전	최범근	스키협회 (중)	37		빙상 (피겨)	싱글D조	성찬희	광안초
13			회전			38		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박지성	센텀초
14			복합			39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박민건	장평중
15		슈퍼대회전	40	스키 (알파인)	슈퍼대회전	강영서		부산광역시 체육회			
16		크로스 컨트리	프리10km		허부경	부산진여고		41	대회전	김건호	한체대
17			복합	42			은	크로스 컨트리	클래식5km	김성찬	신도중
18			스프린트 1.2km	43					클래식 2.5km	전아림	남산초
19		클래식 5km	44	30km계주	정종원 등 3명	부산광역시 체육회					
20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4km	서승민	정관초	45				클래식 10km	정종원	
21		스프린트 3km			46	스프린트 0.7km			서승민	정관초	
22	은	산악	스피드	양명욱	부산빌라 알파인	47			스프린트 1.2km	김성찬	신도중
23		스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이현석	대연고						
24		크로스 컨트리	복합	김성찬	신도중						
25			프리10km								

당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스포츠의 세계. 짜릿한 역전극이나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열정을 보고 있다면 온몸에 전율이 오른다. 혹자는 이게 프로선수들만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스포츠에 작은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쓸 수 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프로선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빛나는 열정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



생활체육인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이번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서 열띤 격전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2,67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41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다. 대축전 기간 내 ‘제29회 한·일생활체육교류 초청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일본 에히메현과 이시카와현의 생활체육 동호인 151명도 참가했다. 일본 선수들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총 8개의 종목에 참가했다.

올해 전국시민체육대축전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구호로 힘차게 시작됐다. 첫날에는 게이트볼, 궁도, 골프 등의 경기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인 25일에 개회식이 열리며 대축전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은 ‘OK! Now Jeonnam, 활기 UP 생활체육!’이 주제였으며, 식전공연, 공식행사, 축하공연으로 구성됐다. 풍물패와 비보잉, 서예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에 관객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식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전남의 매력을 소개하는 ‘마당놀이 전남 생생단’이, 2부에서는 AI 시대에 맞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3부에는 ‘하모니 오브 전남’을 테마로 한 멀티미디어쇼로 선수와 관객을 맞이하는 동시에 전남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뒤이어 축하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박지현, 황윤성, 걸그룹 트리플에스 등 ‘황금 라인업’이 현장에 열기를 더했다.

재능은 꽃 피우는 것, 센스는 갈고 닦는 것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매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대축전의 평균 연령은 46.67세였다. 그중에서도 60대가 3,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파크골프 선수인 이태로 어르신은 만 91세로, 최고령 참가자로서 노장의 노련미를 뽐냈다. 이태로 어르신은 부산 금정구파크골프협회 회장으로 아흔이 넘었음에도 힘 있는 스윙을 보여주었다. 생활체육에 대한 어르신의 열정은 많은 참가자와 관객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태로 어르신은 만 87세의 국학기공 선수 이 희빈 어르신과 함께 공동으로 최고령상을 수상했다.



한편 최연소 참가자는 빙상 종목의 신유주 어린이로, 만 6세의 나이로 참가했다. 신유주 어린이는 대축전을 시작으로 빙상 종목의 빛나는 꿈나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녀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태권도 선수 강서운, 강담희 자매는 아버지 강태규 코치와 함께 경기에 임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다. 바로, 스포츠를 애정할 것. 그러기만 한다면 자연히 생활체육인으로서의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아하느냐다.

스포츠 도시 부산이 간다!

생활체육을 애정하는 부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맹활약을 펼쳤다. 부산은 지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부산선수단 참가 규모는 1,372명이나 됐고 선수들은 각자만의 ‘스포츠 이야기’를 선보였다.

부산은 체조와 풋살 총 2개의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두 종목에서 각각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



지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는 생활댄스 체조 일반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7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다른 종목들도 저마다 빛나는 성과를 쟁취했다. 국학기공, 에어로빅힙합, 육상, 축구에서 준우승, 그라운드골프, 롤러, 사이클, 수중핀수영, 철인3종, 태권도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모든 선수는 열정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되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지 않는 뛰어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선수단은 성취상 3위를 수상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종목별 고른 성과를 거둔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했다”며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통해 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 모두가 챔피언

4일간의 여정 끝에 4월 27일,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막을 내렸다. 폐막식은 목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으며 나흘간 펼쳐졌던 대장정을 위해 축포를 쏘았다. 폐회식은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발표 및 종합시상, 대회기 이양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축전에서는 생활체육이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이는 선수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응원한 코치, 관객, 그리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 관계자들까지. 모든 이들의 땀방울이 스포츠 정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이러한 화합 정신을 위해 여러 상을 수여한다. 질서상, 경기운영상, 특별상, 성취상, 경기력상 등 6개의 분야로 시상을 진행한다. 경기력상은 중

합 1위 경기도, 2위 전라남도, 3위 서울특별시 선수단이 수상했다. 성취상은 전년 대비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전라남도가 1위, 강원특별자치도가 2위, 부산광역시가 3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와 기관이 다양한 상을 받았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체육인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또, 생활체육 동호인과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감동·화합·안전 대축전’으로 큰 호응을 얻어냈다. 생활인들의 빛나는 체육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우승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매력이다.

한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만여 명의 합성, 부산을 하나로 만들다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지난 11월 29일과 30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일대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올해로 36회를 맞은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열린 것이다. 16개 구·군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선수단과 6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만든 축제의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화려한 전야제로 포문을 열다

첫날 저녁,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야제는 부산 시민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16개 구·군체육회는 각자의 색깔을 담은 퍼레이드로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각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고, 체육관은 순식간에 부산 16개 지역의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김성환, 유지나, 박지현, 박서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이 함께한 레이저 퍼포먼스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라는 주제로 상영된 영상은 생활체육이 만들어 온 부산의 지난 시간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영상이 끝나고 객석 곳곳에서는 힘찬 박수 소리가 들렸다.

치열했던 경쟁, 그 속의 열정

이튿날, 14개 경기장으로 흩어진 선수들은 각자의 무대에서 땀을 흘렸다. 축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16개 종목에서 펼쳐진 경기는 구·군의 자존심이 걸린 진지한 승부였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축구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남구가 차지했다. 이어서 종합 2위는 부산진구, 3위는 사상구가 가져갔다. 질서상은 해운대구·영도구·사하구, 화합상은 강서구·연제구·중구의 몫이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악수를 나누는 선수들, 상대팀 선수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까지.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리고 즐긴다는 것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선수단의 경기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도 돋보였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스크린스포츠 체험,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존은 가족 단위로 찾은 시민들이 직접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를 높였다.

이번 행사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래구청, 동래경찰서, 동래소방서 등 관계기관은 행사 시작 전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경기장 곳곳에 배치된 안전요원들,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진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움직인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들의 헌신이 모여 안전한 축제가 완성되었다.

36회를 이어온 축제, 앞으로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36회 동안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부산 생활체육인들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이맘때면 부산 곳곳에서 모인 시민들과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다.

장인화 회장은 “이 축제가 36회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시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산 최대 체육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틀간의 열기가 식고 경기장의 불이 꺼졌지만, 이번 대회에서 만들어진 열정과 추억은 내년을 기약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남았다.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종합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종합우승	남구
종합 2위	부산진구
종합 3위	사상구
성취상	남구
질서상	해운대구, 영도구, 사하구
화합상	강서구, 연제구, 중구

종목별 결과

구분	종목	우승	준우승	3위	장려
1	검도	북구	남구	사상구	강서구
2	게이트볼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3	그라운드골프	남구	사상구	금정구	북구
4	족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5	줄넘기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북구
6	체조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남구
7	국학기공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동구
8	탁구	사상구	금정구	남구	해운대구
9	배구	강서구	부산진구	남구	동래구
10	테니스	부산진구	남구	기장군	동래구
11	배드민턴	기장군	강서구	북구	남구
12	당구	영도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13	볼링	해운대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14	축구	남구	금정구	북구	기장군
15	파크골프	사상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16	태권도	사하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되짚어보는 2025년 부산체육

기고문 부산일보 김진성 부장

2025년은 부산체육에 있어 역사적인 한 해이다.

전국체육대회가 2000년 제81회 대회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무엇보다 부산은 2025년 전국체전에서 52년 만에 종합 2위를 차지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2024년 부산체육의 키워드인 ‘행복’을 바탕으로 올해는 350만 부산 시민과 부산체육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한 해였다.

10월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25년 만에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리는 상징성도 있지만, 체육인과 임원, 가족, 관람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3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와 체육회는 긴장했다. 하지만 전국체전이 하루하루 진행될수록 경기 운영은 매끄러웠고, 부산선수단의 기대 이상 선전으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부산 전국체전 52년 만에 종합 2위 ‘기적’

폐막을 며칠 앞둔 시점. 부산체육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러다 큰일 내는 것 아냐”. 부산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종합 2위’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종합 2위는 꿈도 꾸지 않았다. 아무리 주춤 시도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선수들의 수나 경기력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서울과 경기도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은 종합 3위를 목표로 잡았다. 그것도 잘해야 종합 3위이지 잘못하다간 4위에 머물 수도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부산이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6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117개, 총득점 5만 6,870점을 획득해 1위인 경기도(총득점 6만 6,595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난공불락의 서울을 누르고 52년 만에 종합 2위를 차지한 것이다.

부산이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것은 1973년 제54회 대회 이후 처음이다. 부산은 경남에서 분리돼 직할시가 된 1961년 이후 서울 전국체전 때 처음으로 ‘부산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이후 1972년 서울 대회와 1973년 부산 대회에서 2년 연속 서울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종합 2위에 오른 적이 없다. 1964년 서울 대회를 포함해 6차례 3위에 오른 게 고작이었다. 그마저도 2000년 부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3위에 오른 이후에는 3위조차 차지하지 못했다.



하나 된 선수단 전 종목 선전

부산이 이번 대회 2위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전 종목에서 선전을 펼친 결과였다. 특히 세팍타크로, 바둑, 에어로빅합합, 탁구, 복싱, 핸드볼 등의 선전이 빛났다. 이들 6개 종목은 이번 체전에서 모두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부산선수단에 큰 힘이 됐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세팍타크로는 8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에어로빅합합은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탁구와 복싱의 선전도 눈부셨다. 탁구는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따내 총득점 2,270점을 기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부산이 전국체전 탁구에서 종합 우승 자리에 오른 것은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 분산 개최된 제67회 대회 이후 39년 만이다. 복싱의 종합 우승은 더욱 놀랍다. 이번 대회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0개(총득점 1,698점)를 따내며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종목별 종합 2위를 차지한 태권도와 레슬링, 산악, 사격, 검도, 요트 등도 부산이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경기장 밖 빛난 부산 시민들의 활약

부산이 기적 같은 종합 2위를 차지한 데는 부산 시민의 활약이 빛났다.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개폐회식 등 입·퇴장 관리에서부터 경기장 안내, 교통 주차 관리 등을 통해 원활한 대회 운영을 도왔다. 1만 6,000여 명의 시민·학생들로 이뤄진 대회 서포터즈는 경기 관람과 열띤 응원전으로 대회 성공 개최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됐다. 3만 명이 넘는 선수단을 비롯해 선수 가족 등이 대거 부산을 찾으면서 지역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숙박업소들도 체전 효과를 톡톡히 봤다. 관계 기관도 이번 체전에 많은 공을 들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꾸준한 요청으로 부산시는 올해 3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체육국을 신설해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 같은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하나 된 마음 덕분일까. 이번 체전은 신기록도 풍성했다. 신명준(서울시청)은 호흡잠영 100m에서 30초87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수영 자유형 200m의 황선우를 비롯해 수영, 핀수영, 사격에서 한국 신기록 12개가 나왔고, 대회신기록은 82개가 쏟아졌다.

폐막식 날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이 종합 2위 시상대에 서서 트로피를 받는 모습에서 ‘행복한 스포츠 천국의 도시 부산’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체전 3위로 화려한 피날레

제106회 전국체전에 이어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부산은 기적을 이어갔다. 24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에 17개 시·도에서 6,500명의 선수가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부산은 621명의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참가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성과도 눈부셨다. 부산은 금메달 65개, 은메달 87개, 동메달 119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종합 6위를 차지한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가 세 계단 올랐다. 역도는 금메달 22개를 획득해 선수단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겼다. 수영(금 12개), 육상 필드(금 8개), 론볼(금 6개), 탁구(금 5개)에서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전국장애인체전을 끝으로 부산은 13일 동안의 스포츠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체전 열기 이어받은 시민체육대축전

전국체전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11월 29~30일 제36회 시민체육대축전이 열렸다. 16개 종목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참가해 축제를 즐겼다. 시민체육대축전은 엘리트 위주의 전국체전과는 달리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시민 체육 축제다.

29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30일에는 강서실내체육관 등에서 16개 종목에 2만여 명의 동호인 선수가 모여 구·군 대항전을 벌였다. 남구청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부산 개막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12월 1~5일 부산 벅스코에서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WADA 총회를 개최한 건 아시아에서 부산이 처음이다. WADA 총회에는 191개국 정부 대표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경기연맹(IF), 각국 도핑방지기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이 3년 전 유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룩한 성과다. 스포츠 공정

성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은 ‘체육 천국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회의 핵심 의제는 2027년부터 적용될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과 기술·운영 지침인 ‘국제표준’ 개정이다.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운영 독립성 확대와 관련한 조항도 새롭게 논의됐다. 총회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부산선언’이 발표됐다. 부산선언은 스포츠 공정성과 선수 보호, 국제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 선언문으로, WADA 총회가 도핑방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결과물이 될 전망이다.

부산체육이 2025년 기적 같은 한 해를 보냈지만,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부산이 더 질 높은 체육도시로 성장하려면 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운영적·인문적 문제도 과제다. 생활체육 인구는 급속히 늘어가지만 공공기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체육회를 통해 민간이 각종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바뀌어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체육대회라는 새로운 세상

기고문 국제신문 임동우 기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매년 ‘전국체육대회’가 각지에서 개최되는 건 알았다. 정작 전국체전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기울인 기억은 없다. 해마다 개최지가 어디인지조차 몰랐다. 부산선수단이 어떤 결과를 일궈는지, 누가 어느 종목에서 메달을 땀는지 알 리 만무했다. 마침 스포츠부 기자로 있을 때 마침 부산에서 제 106회 전국체전이 열렸다.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현장을 지켰다. 모든 경기를 본 것도 아니면서도 ‘신대륙 발견’을 운운하는 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찰나에 울고 웃는 선수들

전국체전 첫 취재는 사전 경기로 열린 카누(C-1000m) 남자 일반부 경기였다. 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으로 향하며 여러 번 대중교통을 갈아탔다. 한 번씩 갈아탈수록 창밖 풍경은 순식간에 변했다. 분명 도심에서 출발했는데 마을버스에서 내리니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졌다. 한참을 걸어 경기장에 도착했다. ‘여기에 경기장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노를 들고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선수를 보며 이내 정신을 차렸다. 황선홍 선수(강서구청)가 출발선에 섰다. 전국체전 이전 이미 전국 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던 황선홍 선수는 2위와 넉넉한 격차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산은 지난 9월 26일 황선홍 선수의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25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서막이 올랐다.

전국체전 현장을 둘러보며 여러 감정을 느꼈던 건 그만큼 살면서 체육과 담을 쌓고 살았던 탓이다. 검도, 산악, 육상, 복싱, 레슬링, 세팍타크로 등의 경기를 지켜보며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찰나의 순간 승패가 결정되고 누군가는 울고 웃었다. 승패가 갈린 뒤 선수들의 각기 다른 표정을





보며 ‘신기함’, ‘궁금함’, ‘놀라움’ 등의 각종 감정이 교차했다. 당장 주어진 기사 마감에 마음이 급했지만 적어도 경기장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선수를 보며 새로운 세계가 전하는 떨림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 체전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을 때 아쉬움이 컸다. ‘지금부터 체전을 챙기면 더 잘 챙길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만큼 올해 전국체전은 흥미진진했고 출전한 선수들은 한 해 갈고닦은 기량을 온 힘을 다해 쏟아냈다.

전국체전 2위를 만든 숨은 공신들

25년 만에 열린 안방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은 52년 만에 종합 2위에 올랐다. 부산 선수들이 전국체전을 바라보며 1년간 기량을 갈고닦아온 덕분이다. 하지만 ‘숨은 공신’이 없었다면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 수 없었을 거다. 체전의 숨은 공신은 누가 뭐래도 부산광역시체육회다. 장인화 회장과 모든 직원이 체전 준비와 경기 운영에 힘을 쏟은 결과 종합 2위에 올 수 있었다. 누구 한 사람만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체전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다했다. 험한 말로는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성공적으로 체전을 마치기 위해 애썼다. 현장을 찾아 선수를 격려하고 선수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록으로 남겼다.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결과를 집계하고 원활한 현장

지원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매일 상황실에서 기사를 마감하며 상황실에서 종일 바쁜 체육회 직원을 보며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나’, ‘어찌 저토록 애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성화는 꺼졌지만 그들의 노고 덕분에 ‘새 역사’를 썼다.

아직 갈 길 먼 ‘스포츠도시 부산’

25년 만에 부산에서 전국체전을 연 까닭인지 부산시의 체전 준비 과정에서 ‘잡음’이 적지 않았다. 경기장 건립을 두고 시와 구가 접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했다. 해당 종목을 즐기는 동호인들은 부디 온전한 경기장 하나를 얻을 수 있길 기대했다. 동호인의 소망은 불발됐다. 경기장 건립 과정에서 체육진흥기금 지출심의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선수와 생활체육인은 지역에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기대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새로운 육상 트랙이 깔리고 국제 규격의 산악 경기장이 생겼다. 전국 대회는 고사하고 변변한 연습 공간도 없던 육상은 드디어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대회도 열여 선수들의 실전 감각도 가다듬을 수 있게 됐다. 부산 육상계는 마냥 웃을 수 없다. 시가 40~50억 원을 들여 지은 육상 트랙을 뜯어내고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사직구장 대체구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육상은 모든 종목의 기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최소한 3년간 쓰지 못하면 가뜩이나 약한 부산 육상이 얼마나 더 퇴보할지 알 수 없다. 체전 과정에서도 부산시의 아쉬운 운영을 직접 목격하며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응급 처치를 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홍역을 치렀다. 오죽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원봉사자가 “구급함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될 텐데 그거 하나를 못 주나요”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민망했다. 시는 뒤늦게 보완에 나섰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뒤였다. 금메달이 유력한 곳을 잠시 찾았다가 메달을 걸어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인기가 없고 위험할 곳에 직원이 직접 찾아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다면 더욱 성공적인 체전이 되지 않았을까.

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시-교육청 ‘합심’해야

영광의 순간은 이제 과거가 됐다. 내년 전국체전과 앞으로의 부산체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시 분주히 움직일 때다. 올해 체전이 부산체육에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육상과 수영 등 기초 종목을 키워야 한다. 부산은 과거 세팍타크로를 정책 종목으로 육성해 올해도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켜냈다. 기초 종목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 그 중심에는 체육 전문가인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자리 잡아야 한다. 시체육회가 육성 방향을 잡고 지원 방안을 고안하면 시와 교육청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부산체육을 키워내기 위해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 아직은 체육국을 만든 이유를 체감하기 어렵다. 교육청 또한 체육 유망주를 찾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시체육회, 시, 교육청이 각기 따로 움직여서는 곤란하다. ‘1+1+1=3’이지만 세 기관이 따로 놀면 각자의 노력을 더한 값이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 국제신문은 전국체전이 끝난 뒤 시체육회-시-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종목을 키우고 꾸준한 전국 대회 유치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세 기관 모두 협의체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기초종목에 대한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 국제신문은 기다리고 있다. 국제신문보다 훈련할 곳이 없어 전국을 떠돌고, 지역에서 대회를 열지 못해 실전 감각 유지가 어려운 선수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다시 한번 조속한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협의체는 전문성을 지닌 체육회에 자율성을 부여해 부산체육을 한 번 신명 나게 키워볼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신화 쓴 2025 부산체육

기고문 원성만 작가



2025년 부산체육은 새로운 신화를 썼다.

부산시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 전국체육대회에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당초 목표는 3위였다. 6대 광역시 중에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도시 부산의 저력과 역동성, 포용의 문화를 유감없이 발휘한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와 찬사가 쏟아졌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부산의 체육 역량을 전국적으로 확인받은 자리였다.

부산 선수들의 투혼과 시민 성원이 빚어낸 뜨거운 감동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50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38,578명, 18개국 재외 한인단체 선수단 1,544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산시 선수단은 2,000명(선수 1,302명, 임원 698명)이 참가하여 갈고닦은 노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종목별로 보면 핸드볼과 탁구, 복싱, 세팍타크로, 에어로빅·힙합, 바둑 등 6개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했다. 특히 세팍타크로는 전국체육대회 8연패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2010년부터 세팍타크로를 정책 육성 종목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으로 선수 발굴 시스템을 갖춰 기량 있는 선수들을 꾸준히 발굴해 온 덕분으로 분석된다.

에어로빅힙합도 4년 연속 종합 우승했고, 김지윤(부산동여고)·김현지(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가 에어로빅힙합에서, 이은재(한국체대) 선수가 양궁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다관왕 12명(3관왕 3명, 2관왕 9명)을 배출했다. 복싱과 핸드볼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6~8위권을 맴돌던 부산이 올해 준우승의 신화를 창조한 것은 그동안 선수들과 지도자, 부산시와 체육계 관계자들의 피땀 어린 훈련과 뒷받침,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일군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국체육대회 같은 대규모 행사는 선수단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지원이 중요한 일이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이동 지원을 위해 모두 4,300여 대의 차량이 투입되어 대회 성공을 뒷받침했다.





2025 부산체육 돌아보기

연초부터 각종 대회에서 역대급 성과 이어져

부산체육의 새로운 신화 창조의 첫 시작은 올 2월에 열린 제 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였다.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 제 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리 부산선수단은 6개 종목에 250명이 참가(선수 172명, 임원 78명)하여 역대 최다(금 19개, 은 16개, 동 12개)인 4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8년 연속 종합 5위를 지켰다.

이는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거둔 32개의 메달(금 8개, 은 10개, 동 14개)보다 15개나 더 많다. 최다 메달 기록이었던 제104회 대회의 35개를 뛰어넘는 역대급 성과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특히 스키 종목에서 전준상 선수(크로스컨트리)가 5관왕에, 허부경(크로스컨트리)과 최범근(알파인) 선수가 각각 4관왕, 이의진(크로스컨트리)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며 다관왕이 많이 나와 역대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5.24.~5.27.)에서도 우리 부산선



수단은 34개 종목에 1,044명(선수 773명, 임원 271명)이 참가하여 대회 참가 이래 최다인 105개(금 30개, 은 25개, 동 50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건강한 시민이 만드는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의 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포츠 콘텐츠 개발과 부산 특화 행사들이 열려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향한 야심 찬 시도와 노력들도 알차다.

낙동강의 매력을 담아낸 ‘부산 낙동강 슬로우 철인3종 페스타’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해상 교량인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도심과 바다 위를 자전거로 가로지르는 세계 최초의 자전거 투어인 ‘세븐브릿지 투어’는 예매 1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3,000명이 참가했다.

경제적 효과도 컸다. 관광객 유입과 직접적인 소비 효과만 약 8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스포츠 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 국제적인 방송사 CNN이 직접 행사현장을 취재했고, 유럽과 북미·중남미·아시아 등 전 세계에 부산이 소개됐다.

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종합형 대회와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부산이라는 공동체를 더욱 튼튼히 했다.



체육국 신설과 커지는 기대감

이렇듯 2025년 부산이 25년 만에 개최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둬며 부산체육의 새로운 신화를 쓸 수 있었던 데는 시스템과 정책, 현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 바탕에는 올 3월 부산시에 ‘체육국’이 신설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였다.

“부산은 2002 아시안게임, 프로 스포츠, 다양한 전국 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 평가받아 왔지만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는 없었어요. 체육국은 체육 정책-현장-대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시 브랜딩·관광·복지·경제를 아우르는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오순 부산시 체육정책과장의 말처럼 부산체육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전담 부서가 생긴 것이다. 그 배경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꾸준한 요청도 컸다.

스포츠 시설 확충 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사직종합운동장에 종목별 공인 규격을 갖춘 국제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과 화명생태공원에 테니스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80여 곳의 시설을 국제 공인 규격에 맞게 개선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부산체육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부산시 체육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서 시민의 건강한 삶과 부산을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이끌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공인 경기장과 훈련장 등 공공 체육 인프라 부족은 부산이 생활체육 천국도시와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도 문제다. 대형 국제대회 유치, 전문체육 지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 전략과 재정 자립도 강화가 필수적이다.

육상, 수영을 비롯한 기초 종목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선수 육성도 과제다. 부산이 애써 발굴하고 소중히 키운 선수들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실업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부산체육의 놀라운 성과들은 모든 선수단이 각자의 자리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부산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도 큰 힘이 됐다.

2025년이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의 기초 체력을 다진 한 해였다면 이제는 부산체육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야 할 때다.

2025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2025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글로벌 스포츠도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출범

2025년은 부산체육의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해였다. 광역시·도 중 최초로 탄생한 ‘부산광역시 체육국’은 출범 첫해부터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기록하며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 더 나아가 ‘글로벌 스포츠도시’라는 성과를 올렸다. 체육국 출범은 행정 체계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였다.

스포츠 생태계 체계적 정비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로 이루어진 전문 행정조직으로, 부산체육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체육국은 출범과 동시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국제스포츠 행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스포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시민들이 체육을 일상에서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

인 역할을 하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5대 인기 생활스포츠 대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으며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혔다. 이에 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현대화도 탄력을 받아 ‘어디서나 체육을 즐기는 도시’라는 목표가 현실과 가까워졌다.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유치

2025년, 부산은 메가 이벤트 운영으로 글로벌 스포츠도시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체육국 출범 이후 강화된 행정지원과 도시 전체의 역량 결집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부산선수단은 5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하며 부산체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선수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체육국이 출범 이후 경기력 지원 체계를 과학적·전략적으로 재정비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어서 12월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부산은 국제 스포츠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1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였다는 상징성과 함께 국제회의 운영 능력과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스포츠도시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개의 국제·전국 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5년은 체육국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해였다.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국의 역할

체육국은 3개 부서와 1개 사업소가 각자 전문 영역을 다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부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체육정책과는 체육시설 확충, 스포츠 산업 육성, 국제 대회



유치 등 체육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국체전기획단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업무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주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정책화, 인재 발굴 및 육성, 부산광역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 단체들의 요구와 제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체육국의 주요 업무이다.

체육국 손태욱 국장은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최고의 파트너로 협력해 부산체육 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부산체육

체육국의 출범은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와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만든 결과였다. 그렇게 탄생한 광역시·도 최초의 체육국은 출범과 동시에 수많은 성과를 이루고, 또 만들어가고 있음으로써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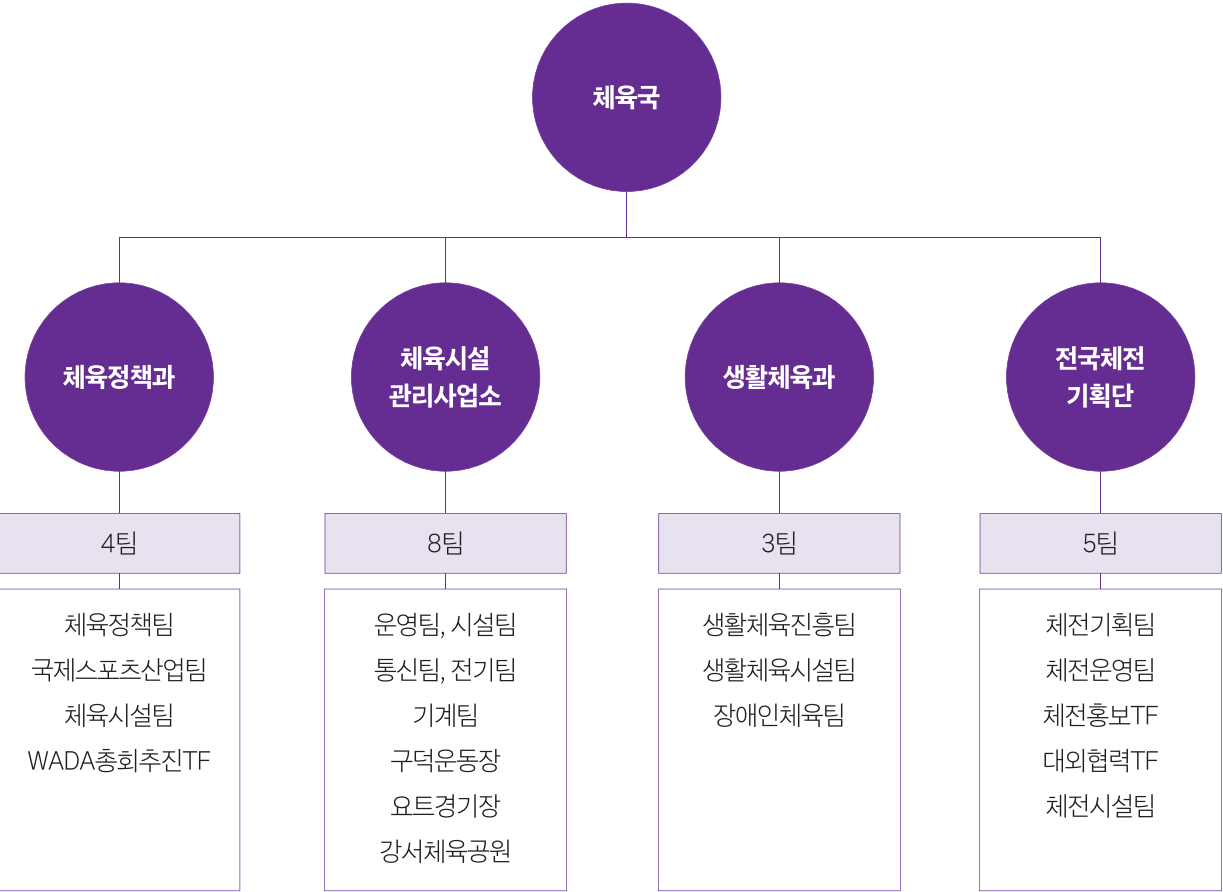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의 행정적 지원 속에서 부산이 5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부산체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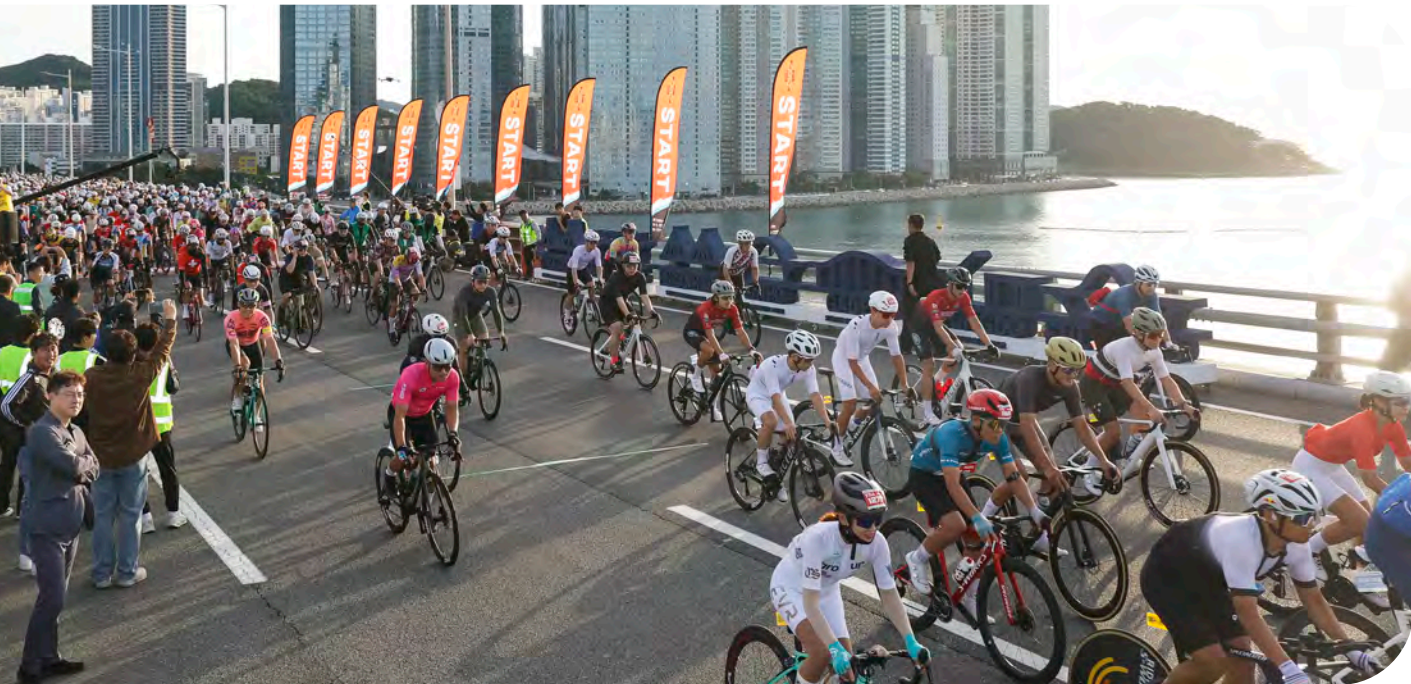


라며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고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부산시와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체육국 출범은 부산이 글로벌 스포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라고 평가했으며, 체육은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만큼 체육국을 중심으로 스포츠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 국내외 체육행사 확대·강화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은 이제 단순히 체육을 즐기는 도시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스포츠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에 체육국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범 첫해에 이룬 성과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체육활동 참여율 1위 달성

‘2024 국민 생활체육 조사’ 결과, 부산은 생활체육 참여율 80.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60.7%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부산이 자타공인 ‘생활체육 천국도시’로 거듭났음을 보여준다.

체육시설, 보다 많이 보다 가깝게

‘생활체육 참여율’이란 사람들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말한다. 2022년 부산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59.2%였는데, 최근 2년간 부산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도 전국 1위(58.3%)에 올랐다.

부산시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는 재미를 넘어 하

는 재미, 부산은 스포츠다(多)’라는 슬로건 아래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시설 확충(다(多) 있네!),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다(多) 모여!), 일상적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다(多) 같이!) 등의 활동을 펼쳤다.

먼저,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였다. 지난 3년간 160억 원을 들여 41곳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시설 62곳을 개보수하였다.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지역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20곳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8곳과 시니어형 체육시설 1곳도 건립 중이다. 이 중 ‘부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특화형 체육시설과 동계스포츠(컬링장) 기능을 동시에 갖춘 통합형 시설이며 ‘복합힐링파크’는 부산에서 처음 건립되는 어르신 맞춤형 시설이다. 생활밀착형 시설은 10분 내 접근 가능한 마을 단위 체육시설을 말한다.

부산시는 체육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으랏차차 부산 생활체육포털’을 통해 시설 위치,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이즈궁 동백전’ 플랫폼을 통해 현재 위치 기준 5~30분 이내 거리의 체육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최초가 전국 최고가 되기까지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5월을 ‘생활체육의 달’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부산이 ‘생활체육 천국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올해 생활체육의 달에는 ‘빅5 스포츠 페스타 인 부산(에어로빅·힙합·볼링·파크골프·배구)’,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빙상(쇼트트랙) 동호인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부산시장배 전국바둑대회’,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부산시장배 전국 시니어 테니스대회’, ‘컬러레이스’ 등 총 8개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중 ‘빅5 스포츠 페스타 인 부산’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부산을 대표하는 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철인 3종 페스타와 파크골프대회는 낙동강 일원에서 개최하여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만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부산시는 이 외에도 사이클 대회, 장애인 e스포츠 대회, 아이스하키 대회, 클라이밍 대회, 합기도 대회, 3×3 농구 대회 등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대회를 비롯해 ‘달려라 부산’, ‘달밤의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수록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고령층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생활체육 활성화가 곧 예방 중심의 복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생활체육 참여자에게 인센티브(튼튼머니)를 제공하고, 체력 측정 인증센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 처방을 지원하는 ‘과학적 체육 복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활체육은 시민 건강의 출발점이자 도시를 바꾸는 힘”임을 강조했다. 부산은 앞으로도 여느 도시보다 가장 앞서 ‘운동하는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전국시군구 체육회 성과평가 부산광역시 2위 달성

부산광역시체육회가 2024년 전국 시·군·구 체육회 성과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대한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운영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조직별 평가 항목을 세분화, 절대 평가를 거친 후 표준점수를 산출한 것을 근거로 한다.

지도자 직무 만족도 부문 최고점, 4개 구 수상 영예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29개 시·군·구 체육회의 평가항목인 핵심성과, 운영성과, 구성원업무성과 부문에서 각각 28.1점, 29.13점, 25.28점으로 총계 82.48점을 기록했다. 특히 체육회 운영성과의 하위 항목인 ‘지도자 직무 만족도’ 부문에서 시도지부 최고점인 7.96점을 기록해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과 그에 따른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활체육 서비스 품질 향상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 생활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교육과 업무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10위에 해당하던 순위가 2021년에는 4위로 수직 상승했고 이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문에서는 전체 90개 지역 중

2024 전국시도지부 평가항목		
시도		부산
핵심성과 (35)	수혜자 만족도 (20)	18.62
	수혜자 증가율 (15)	9.48
	합계	28.1
체육회 운영성과 (35)	인건비 예산집행율 (5)	4.79
	지도자 직무 만족도 (10)	7.96
	처우 개선 만족도 (5)	3.35
	지도활동관리 (5)	3.11
	홍보활동 수행 가점지표 (최대2)	1.1
	사업운영 역량 (10)	9.58
	자체규정 보유 감점지표 (최대감점 3)	-0.76
	합계	29.13
구성원 업무성과 (30)	지도자 성과평가결과 (30)	25.28
총계(100)		82.48

사하구체육회(1위), 서구체육회(2위), 금정구체육회(3위), 강서구체육회(5위)가 선정되며 관내 4개 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각 1,180만 원, 830만 원, 5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생활체육교실 확산 성과 속 체계 정비 속제도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교실 확산과 사업인지도의 꾸준한 개선이 주요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시·군·구 체육회는 관리·운영 전반에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던 수혜자 만족도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고, 사업운영 역량 부분에서도 지표가 다소 하락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최고점을 기록한 지도자 업무 만족도 부문에서도 전체 지표는 다소 하락했고 특히 지도활동관리와 홍보활동 부문에서의 아쉬움이 드러났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역량 향상 부문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났으나, 지도활동 수립률 및 교안 작성 평가, 지도계획 수립률 등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성과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부산의 생활체육지도자 각각이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얼마나 땀 흘려 노력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며, 근 4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것이 고무적”이라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생활체육 환경 개선과 양질의 스포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산 생활체육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과학적 스포츠 영재 육성사업 2년 연속 선정

부산시는 ‘과학’으로 체육 영재를 발굴·육성하며 체육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는 2024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산하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비(非)등록 유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운영 주체로 최종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5년에 다시 한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영재 육성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게 되었다.

‘과학’으로 키우는 미래 스포츠 영재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망주 발굴은 대부분 동아리나 학교 체육, 지역 체육관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체육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 과학적 영재

육성사업은 이 틈을 메우는 새로운 접근이다. 등록 선수가 아니고 체육 활동 경력이 없어도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체육 영재를 발굴한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2024년 사업 선정 당시 초등학교 3~4학년생 중 비등록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격·체력·운동기능 등 과

학적 검사를 거쳐 30명의 체육 영재를 선발하였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한국에서 비교적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KOSTASS(Korea Sport Talent Search System)가 있다. 이 시스템은 체격, 체력, 운동능력, 생리적 기능 등을 측정해 다양한 종목에서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된 평가체계다. 학계 연구에서도 골연령이나 체중, 흉위 같은 체격 요소보다 달리기 속도, 점프력, 민첩성, 순발력 등 운동 능력 측정값이 KOSTASS 점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학영재 선발이 단순히 ‘키 크고 덩치 좋은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운동 기능의 가능성’을 가진 아이를 찾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 체육 영재 선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넓은 풀(pool)에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전략이다.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탐색

부산시는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한 선발 과정을 이어간다. 선발 과정은 우선 서류 접수를 통한 모집이 이루어지며, 1차로 KOSTASS 항목 중 체격과 체력(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측정하고 2차로 체력 및 운동기능(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측정한다. 1차와 2차 걸쳐 진행된 과학적 평가 및 전문가의 종목 적합도를 기준으로 30명을 최종 선발한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최신 측정 장비, 박사급 연구진, 전문 트레이너를 기반으로 과학적 분석을 수행한 뒤, 선발된 각자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과학적 스포츠 영재 육성사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기초 종목 중심 실기 교육에서는 육상, 수영, 체조 등 체육 기초 종목을 경험하며 몸의 균형, 유연성, 민첩성 등을 키운다. 스포츠과학 이론 교육 및 탐방에서는 스포츠과학의 기초 원리, 인성, 스포츠의 철학



과 윤리 등을 교육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스포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체육시설 견학, 선수촌 방문 등을 진행하고, 지역 체육회, 학교, 종목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회 참가, 전문 종목 체험, 해양스포츠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과학적 스포츠영재 프로그램 진행 시 2024년 선발된 영재들에게도 체력강화 심화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과학+체험+실전’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직접 종목을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찾아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다.

이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실험이 아닌 장기적 비전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2년 차 시동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2024년 영재 30명 중 9명이 엘리트 선수로 등록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



힌 바 있다. 이는 과학으로 발굴한 체육 영재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학+영재+운동’이라는 새로운 조합은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체험을 넘어 지속 가능한 훈련과 관리, 심리적·신체적 건강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개인별 맞춤 관리, 부상 예방 프로그램, 지도자와 학부모 교육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우수한 사업운동을 바탕으로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2025년 지역스포츠과학 거점운영 워크숍에서 과학적 스포츠 영재 육성사업 운영 체계를 우수 사례로 제시하여 BP(Best Practice) 경연대회 2등을 수상하였고, 과학적 영재들은 2025년 육상 챌린지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2025년 사업의 목적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과학영재 발굴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및 학교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수 발굴·육성 기여, 2024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고도화다. 또한, 일부 우수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전체의 체육 저변 확대, 더 많은 아이가 ‘스포츠’라는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부산체육 인프라-공교육-지역 기관이 함께 협업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장기 목표다.

이를 위해 과학적 측정 인프라 및 전문인력 기반의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반 실효성 확보, 스포츠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수 육성 생태계 조성

부산스포츠과학센터의 ‘과학적 스포츠 영재 육성사업’은 단순한 꿈나무 육성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선수 육성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이자 도전이다.

과학적 측정과 데이터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잠재력 있는 아이’를 발굴함으로써 기존 체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기·과학·체험·실전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적성·흥미·성향을 탐색하게 하고, 지역사회-학교-체육회-과학센터가 협업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영재 육성 토대를 마련하는 것. 결국 이 사업이 그리는 그림은 엘리트 육성이 아닌 스포츠가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학’으로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의 지난 행보가 ‘가능성’에 두고 이루어졌다면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그 가능성은 ‘책임 있는 현실’이 되었다. 센터는 새로운 선수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도전을 해나갈 계획이다. 만약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부산은 물론 한국 체육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의 눈으로, 데이터의 힘으로,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협력으로 자란 꿈나무들이 언젠가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 스타로 자라나길 기대한다.



양정모 선수 금메달 예비문화유산 선정

스포츠에서 빛나는 금메달은 동경의 대상과도 같다. 많은 선수가 이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승패를 겨룬다. 그렇기에 금메달은 더더욱 값진 것이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서 메달을 쟁취한다면, 보는 이도 선수만큼 감정이 고양되곤 한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금메달 중 가장 빛나는 메달이 있다. 국가유산 청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사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바로 양정모 선수의 메달이다.

질풍가도! 레슬러의 삶

투기 종목 중 기원이 오래된 스포츠인 레슬링은, 가장 야성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스포츠이다. 우리나라에는 1935년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소개되면서 레슬링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 이후 국제적인 대회에서 정지현, 김현우 등 걸출한 선수들을 배출하며 레슬링 강국으로 부상했다. 레슬링 강국으로서 역사를 쌓으며 수많은 레슬링 영웅이 피땀 흘려 자신의 승리를 빛내온 것이다. 그중

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꼽자면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쟁취한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은 양정모 선수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부산 동래구에서 나고 자란 양정모 선수는 중학생 때 레슬링을 시작해 남다른 두각을 드러냈다. 이후 동아대에 진학한 그는 여러 번 국제 경기에 출전하며 값진 승리를 쟁취했다. 그는 당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렇기에 광복

예비문화유산 제도

2024년 9월 15일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는 현대유산 보호 범위 확장과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선정 기준

-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 ②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것
- ③ 다수의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의 것

이후 최초로 얻어낸 금메달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을 것이다. 이는 양정모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광복 후 28년 만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시상대에 올라선 양정모 선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신문사는 일제히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알렸고, 양정모 선수의 부친이 “정모야, 욕봤다”고 한 말은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 그야말로 ‘양정모 효과’가 파다하게 퍼진 것이다. 현재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국제대회기념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원래 개인이 보유하다 부산의 체육 유산을 모은 박물관 건립에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체육회에 기증한 것이다.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인의 자긍심을 드높인 상징적인 유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유산을 미래로 가져가는 길

이만큼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메달이, 올해 대한민국 첫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하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한다. 이 제도는 국가유산청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선정하여 향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현대사의 주요 상징물이 담긴 10건의 유산을 첫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했고, 그중에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포함되었다. 그의 금메달은 지름 6cm, 두께 0.6cm, 중량 207g로, 근래 제작되는 금메달보다 얇고 가볍다.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은 태릉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의 건립, 병례특혜 제도 등 한국 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한국인 특유의 투지가 이루어낸 성과물로 평가받는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은 역사적 가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부산체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부산 대표 문화유산으로 소중히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외에도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의상 스케치 등을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부산은 25년 만에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로 52년 만에 종합 순위 2위에 올랐는데요. 다음 중 이번 대회에서 종합 순위 1위를 달성한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탁구 ② 바둑 ③ 배구

2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은 6개 광역시 중 1위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으며, ○○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산은 몇 년째 종합 5위를 하였을까요?
① 18년 ② 15년 ③ 10년

3 11월 29일과 30일,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16개 구·군체육회의 아름다운 경쟁과 화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대축전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곳은 어디일까요?
① 강서구 ② 남구 ③ 기장군

『부산체육』 제84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② 2위 2. ① 복싱
3. ③ 세팍타크로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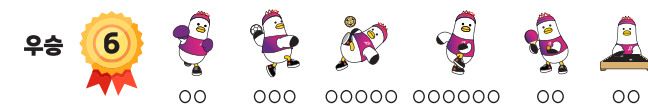
손*원(8781) 신*섭(7371) 유*경(4099) 노*희(1328) 박*미(3435)
김*미(0580) 임*혁(5689) 김*미(0876) 최*훈(8723) 박*희(9236)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기록 돋보기 선전종목



<Sports is Busan 2025> 11쪽

2 힌트

부산선수단 250명은 6개 종목에 출전하여 총득점 251점으로 종합 5위에 올랐다. 이로써 부산은 무려 ○○년 연속 종합 5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1위라는 타이틀을 지켰다.

<Sports is Busan 2025> 17쪽

3 힌트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은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축구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 차지했다. 이어서 종합 2위는 부산진구, 3위는 사상구가 가져갔다.

<Sports is Busan 2025> 25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5.12.15.(월) ~ 12.31.(수)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6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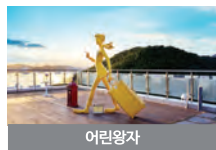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스폰서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 <https://awesomestar.co.kr>

|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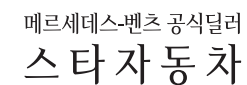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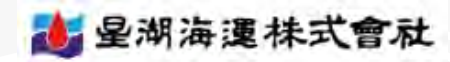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walk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사장님 월급통장

처음이라는
묘한 **떨림**

첫 가게, 첫 고객,
그리고 사장님을 위한 첫 통장

사장님의 시작이 놓인 곳에
부산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품 바로가기]

【상품유형】기업MMDA

【가입대상】만 17세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1계좌 가입 가능)

【입금제한】최대 1천만원까지 (천원단위로 입금 가능)

- 입금 시 1천만원 넘는 거래가 발생 시 해당거래 전체 입금불가
- 근거계좌로부터 자동저축을 통한 입금만 가능, 그 외의 입금은 모두 제한 (단, 이 통장의 이자입금 제외)

【이자지급시기】다음 기준일에 계산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대하여 지급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결산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당일
- 이자계산 기간은 최초예금일(또는 지난 결산일)부터 결산일 전일까지

【판매채널】모바일뱅킹

【금리안내】

- 기본이율 : 1.60%
- 우대이율 : 카드가맹점 입금실적 연 0.20%p(2025.6.24기준)
-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 적용조건 : 전월기준 근거계좌로 4개 이상 카드사 가맹점결제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입금(자동저축)】

- 자동저축의 기준금액은 전월 근거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총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준금액에서 설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확정 금액이 다음날 자동저축방식으로 이 통장으로 입금
- 자동저축을 신청(반영)한 다음날부터 자동저축이 시작(반영)되며 매일(공휴일, 주말포함)적용
- 자동저축금액이 실행되는 시점에 근거계좌의 잔액이 자동저축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체 불가
- 자동저축이 매일 실행되는 시점(오전 8시부터 순차적 실행)의 설정/중단 여부에 따라 해당일의 자동저축 여부 결정

- 자동저축되는 금액은 1천원~1백만원으로 천원단위로 가능

- 두가지의 모으기 방법 중 하나의 모으기 방법만 선택 가능하며 변경 가능

① 비율로 모으기 : 기준금액 X 비율(5%, 10%, 15%)

② 금액으로 모으기 : 고객이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저축 실행

【예금가입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553 (심의일자: 2025. 07. 16) | 유효기간: 2025. 07. 16 ~ 2025. 12. 3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